동양화학 1.5만톤 PVA공장 완공

국내수요 2만톤 … 제지·접착제용 수요증가따라 증설도 추진

동양화학(대표 권석명)이 연산 1만5000톤 규모의 PVA(Poly Vinyl Alcohol)공장을 완공했다.
PVA는 섬유의 싸이징 및 제지·접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으로, 그동안 국내생산이 없어 국내수요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, 동양화학의 국산화 성공으로 연간 약 3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이 기대되고 있다.
특히, 이 품목은 선진국들의 기술이전 기피로 국산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, 세계적으로는 일본이 세계 총생산능력의 약 50%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, 우리나라도 일본으로부터 매년 1만3000~1만5000톤 정도를 수입해 왔다.
국내수요는 약 2만톤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며, 향후 제지·접착제 등의 분야에서 상당한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있다.
이에따라 동양화학은 곧바로 증설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으며, 향후 수출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

<화학저널 1992/7/1>